

# 적상산 국가유산 지키기 '앞장'

### 무주군, 선양회 발족... 미래 무형유산 발굴 육성사업 전승·보전

무주군은 지난 26일 '적상산 국가유산 선양회'가 발족했다고 밝혔다. 적상산 국가유산 선양회는 2025년 미래 무형유산 발굴·육성사업 전승 및 보전을 위해 민간 주도로 일어난 단체로, 51명의 대원으로 구성됐다.



지난 26일 '적상산 국가유산 선양회'가 발족했다.

이들은 앞으로 △적상산 국가유산을 지키며 대내외의 교류를 하는 동시에 △조선왕조실록 적상산사고 이안행렬 및 포쇄의식 재연·전승과 무형유산 지정 활동, △조선왕조실록 적상산사고본 반환 운동, △적상산 자연생태계 보전 활동 등을 추진하게 된다. 이규평 회장은 "조선왕조 5백 년 역사를 온전히 지켜낸 선조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해 그것을 무주다움의 기반으로 삼는 데 선양회 추진 목적이 있다"며 "자발적인 국민 참여 운동으로 확산해 적상산 국가유산을 활짝 꽃피울 것"이라고 밝혔다.

지정 문화유산이 있으며 '한국사학보전(선원각)'과 '조선왕조실록 묘향산사고본 적상산사고 이안행렬', '적상산 천일폭포' 등 3건은 비지정 국가유산이지만 과거 적상산사고와 관련한 유무형의 주요한 국가유산으로 관리되고 있다.

황인홍 군수는 "우리의 뿌리인 문화유산은 알고 지키고 공유해 나갈 때 더 깊어지고 단단해질 수 있기에 선양

회 출범에 더 기대하게 된다"며 "군에서도 애정을 가지고 문화유산들이 잘 보존되고 후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적상산 국가유산 선양회를 중심으로 군민 전체가 동참하는 국가유산 전승 활동이 일어나 무주다운 문화가 꽃피길, 천연의 자연생태 자원이 간직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기자



장수군 CCTV통합관제센터 내부

# 스마트 도시안전망 구축 탄력

### 장수군, 국토부 사업 선정... 국비 2억원 확보

장수군이 국토부 공모 '2024년 스마트 도시안전망 확산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국가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도시 안전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관제센터에서 생산된 실시간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통합 운용할 필요성 제기에 따라 추진됐다.

'스마트 도시안전망'은 범죄나 화재, 각종 재난·안전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장수군 CCTV 통합관제센터가 관리하는 CCTV 영상정보를 경찰, 소방, 재난 등 각 유관기관이 실시간으로 공동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주요서비스로는 △(경찰)112 출동과 현장영상, 수배차량 검색 지원 △(소방)119 긴급출동 및 현장영상 지원 △(행안부)재난상황 대응 영상 지원 등

이 있다. 장수군은 사업비 4억원(국비 2억원, 지방비 2억원)을 투입해 내년까지 스마트 도시안전망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안전망이 구축되면 긴급상황 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으며 범죄예방 효과 등 공공분야 안전강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스마트 도시안전망 구축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강화로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기자

# 진안군, 농업·농촌 RE100 실증 지원사업 공모 선정

### 재생에너지 통해 에너지자립마을 발판 마련

진안군은 동행면 능금리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4년 농업·농촌 RE100 실증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농업·농촌 RE100 실증 지원 사업'은 태양광 발전 같은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건물의 열 손실을 줄이는 에너지 효율화 사업 등을 통해 농촌마을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낭비를 줄여 탄소중립 마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군은 올해 8월 중 에너지 사용량 진단 컨설팅을 통한

발전시설용량을 산정하고 10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최종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후 사업계획에 따라 동행면 능금리 상능길마을을 탄소중립 마을로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마을발전소 설치, △주택, 농업 가공·유통 시설에 자가 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마을회관 등 공동이용시설 에너지효율 리모델링, △마을 에너지 사용량 진단 컨설팅 등이 있다.

사업이 끝나면 농촌 마을에서 에너

지 사용으로 발생시키는 탄소 배출을 감축시켜 지역의 청정화와 탄소 중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마을발전소는 상능길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운영·관리하게 되며 이후 발생하는 수익은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이나 마을 발전 기금 등 공익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전춘성 군수는 "이번 RE100 공모사업은 동행면 능금리가 지속적으로 에너지 자립마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사업 대상마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진안군을 신재생에너지의 메카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장수 쿨밸리 페스티벌서 장수한우 특판행사 진행

장수군은 오는 8월 2일부터 11일까지 방화동자연휴양림에서 진행되는 '제2회 장수 쿨밸리 페스티벌' 행사에 장수한우 공동브랜드 협약을 맺은 관내 유통주체와의 협업에 장수한우 특판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1+등급 이상의 장수한우 구이용(등

심, 안심, 채끝, 특수모듬(부채·치마·토시·제비추리)와 정육용(국거리, 불고기), 총 6개 품목을 판매하며 대표적 구이용 부위인 등심의 경우 100g당 1++ 등급 9,000원, 1+등급 7,360원, 정육용 부위도 1+등급 2,720원에 판매하는 등 시중판매가 대비 18

~ 26%의 할인이 진행된다. 또한 쿨밸리 페스티벌에서는 방문객들이 현장에서 구매한 한우를 구워먹을 수 있는 '한우구이존'을 운영하고 대형 풀장과 워터슬라이드 등을 갖춘 워터파크 상시 운영, 송어 잡기, 비치볼 만들기, 수중 가족 대항전 등 다양한 체험과 먹거리를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 중이다. /장수=고관호기자

# 진안고원 명품 수박 출하... 전춘성 군수, 선별장 방문

진안군의 여름철 대표 농산물인 진안고원 명품 수박이 7월 중순 본격적인 출하를 시작했다.

이에 전춘성 군수는 지난 26일 군 산지유통센터 수박선별장을 방문해 현장을 살펴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선별장을 찾은 농민들과 수박 작황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진안 수박은 해발 350m의 준고랭지에서 재배돼 당도가 높고 식감이 아삭아삭하며,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아 소비자들에게 꾸준히 인정받고 있다.

올해 진안군 수박 재배면적은 194ha로, 이 중 진안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대표 최종진, 이하 진안조공)을 통해 약 3,800톤(168농가, 103ha)의 수박이 산지유통센터에서 공동선별을 통해 출하될 전망이다.



진안고원 수박은 철저한 선별과정을 거쳐 농업 하나로마트, 롯데마트, 쿠팡, 도매시장, 온라인 도매시장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선보이게 된다.

전춘성 군수는 "예기치 못한 기상상황 속에서도 진안수박을 위해 힘써주시는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진안 수박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농가 소득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지역 소식통

### 제10회 무주반딧불배 전국 동호인탁구대회 성료

제10회 무주반딧불배 전국 동호인탁구대회가 지난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무주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됐다.

무주반딧불배 전국 동호인탁구대회는 탁구 발전과 동호인 저변확대를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무주군체육회(회장 송재호)가 주최하고 무주군탁구협회(회장 이주원)가 주관하는 것으로, 올해는 전국에서 6백 개 팀 1천2백여 명이 참가해 실력을 겨뤘다.

이번 대회는 전체 부수 개인과 단체전, 혼성 4인 단체전, 남·남 복식, 혼성복식 경기로 치러졌으며 지역 주민들에게도 관련식을 오픈해 주말 볼거리를 선사했다.

27일 열린 개회식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오광석 무주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윤정호 도의원과 송재호 무주군체육회장, 신정현 전북특별자치도탁구협회장 등 내빈 등 1천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무주=전문선기자

### 진안군, 전북특별자치도 역도 선수단 전지훈련 유치

진안군은 지난 24일부터 8월 2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역도 선수단 36명을 대상으로 전지훈련을 유치하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번 전지훈련에는 순창북중(6명)과 전주우아중(8명)이 7월 24일부터 31일까지(8일간), 전주용소중(8명)과 전북체육중(3명)은 7월 24일부터 8월 2일까지(10일간), 전북체고(11명)가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5일간) 진안을 방문하여 구슬땀을 흘릴 예정이다.

순창북중, 전주우아중, 전주용소중 등 3개 학교는 금년 1월에 이어 이번 여름에도 전지훈련을 위해 진안을 찾아와 명실상부 역도 훈련 명소로서의 입지를 재확인했다.

역도 선수단은 오전에는 역도 훈련장에서 체력운동 및 근력 강화훈련을 진행하고 오후에는 인상 및 용상 등 전문 역도 기술 훈련을 진행하여 선수들의 실력향상을 위해 훈련에 매진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